

제약기업, Teva 인수설 잇달아 부인

이스라엘의 다국적 제약기업 테바(Teva)의 인수대상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한국거래소는 11월2일 국제약품, 한국유나이티드제약, 유유제약에 대해 테바와의 인수합병(M&A)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모두 피인수설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.

명문제약도 11월2일 오전 인수합병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12/11/02>